

고랭지 경사밭 토양유실 및 흙탕물 저감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지원

■ 배경 및 필요성

- 강원도 고랭지 밭면적은 15,347ha(전국의 90%)로 토양유실 문제 대두
 - 7~8월 집중호우, 급경사, 객토 및 신 경작지 개발로 침식 취약
 -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녹비작물(보리, 호맥) 종자의 지원이 필요함

■ 제안 내용

- 2013년까지 무상 공급되었던 녹비작물 종자가 2014년부터 자부담(20%)이 되었으며, 2015년부터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가는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%로 제한되어 녹비작물 종자지원 실적은 거의 없음
- 고랭지 경사밭에 무 재배 시 녹비작물을 고랑길이 20m 간격으로 초생띠 재배하면 토양유실량을 87%까지 줄일 수 있어, 녹비작물 종자 무상 공급을 건의함
 - 우선지원 지역(5,457ha) : 강릉 왕산, 홍천 내면, 양구 해안
 - 녹비작물 종자 소요량 : 호밀 19kg/ha, 보리 14kg/ha

■ 파급효과

- 고랭지 경사밭 토양유실에 의한 농경지 침식방지 및 객토비용 절감
- 고랭지 흙탕물 피해액 경감 : 1,600억원/년(환경부 추산) → 544억원

■ 건의부서

- 강원도 농정국 농업기반과, 녹색국 수질보전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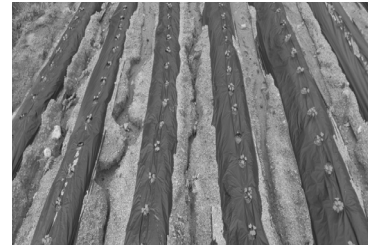
<세부 연구결과>



고랑길이 20m 간격 파종
(보리 + 호맥)



고랑길이 40m 간격 파종
(보리 + 호맥)



무처리

【고랭지 무 재배 시 녹비작물 초생때 재배방법별 토양유실 상황(파종 후 15일)】



고랑길이 20m 간격 파종
(보리 + 호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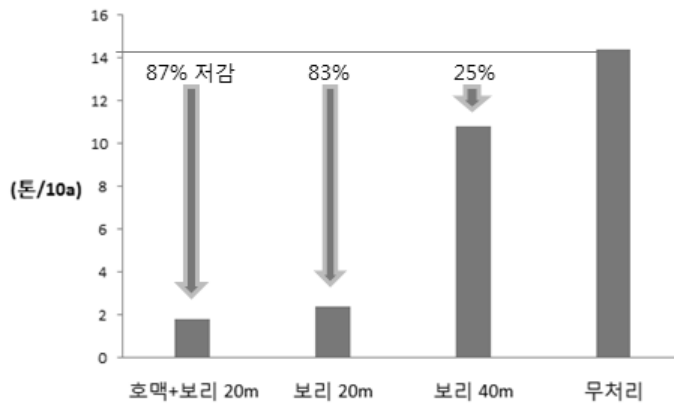


고랑길이 40m 간격 파종
(보리 + 호맥)



무처리

【고랭지 무 재배 시 녹비작물 초생때 재배방법별 발육 유실상황(파종 후 60일)】



【고랭지 무 재배 시 녹비작물 초생때 재배방법별 토양유실량 및 유실저감율】

환경농업연구과 | 담당자 : 임수정, 허수정, 최승출, 윤병성, 박영학, 김인종
(033)248-6094, sjlim0417@korea.kr